

최근 고용동향 및 2005년 하반기 고용전망

황수경·정성미*

I. 머리말

올해에는 우리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지만 산업 생산을 견인하던 수출 증가율이 2004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05년 상반기에도 경기상황이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였다. 비록 민간소비가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출 증가세의 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3.4%보다 낮은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 2005. 7).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5%에서 4%로 하향조정 한 가운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기관에서 3%대의 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반기 고용사정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05년 상반기 취업자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0.9%포인트나 낮은 1.2% 수준에 그쳤고 취업자 중에서도 일용직, 30시간 미만 취업자, 일시휴직자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다만 1/4분기에 비해 2/4분기 들어 취업자 증가가 현저하였는데(1/4분기 0.6%, 2/4분기 1.7%), 이를 고용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전반적 고용불안의 와중에 단기적 수요변동폭이 커진 것에 불과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2005년 상반기 고용동향의 주된 특징들을 살펴보고 올해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반기 고용상황을 전망한다. 아울러 향후 고용정책에서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 황수경=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skhwang@kli.re.kr).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smjung@kli.re.kr).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최근 고용동향 및 주요 특징

1. 주요 고용지표¹⁾ 추이 및 고용상황 개관

2005년에 들어서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상반기의 고용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 수준에 불과하여 전년동기 성장률 5.4%에 크게 못미치는 성적을 보였고 이에 따라 취업자증가율도 1.2%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 하락하였다. 지난 1/4분기의 경우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03년 경기침체기를 제외하면 경제성장(2.7%)과 고용증가(0.6%)에서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1). 2/4분기에 다소 호전되고 있는 듯하지만 이 기간 중 정부의 공공일자리 지원사업과 재정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사업이 병행되었음에 비추어 상반기 고용증가의 일정부분은 우리 경제의 자생적 고용창출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효과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²⁾

노동시장 상황이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노동공급 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상반기와 같은 수준인 61.8%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요증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실업률은 3.7%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증가하였고, 노동력 활용정도(=취업자/생산가능인구)를 보여주는 고용률도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0.1%포인트 떨어진 59.5%를 기록하였다.

1) 통계청은 2005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지난 4주간 구직경험 여부’를 이용해 실업자를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주간 구직경험 여부’를 토대로 실업자를 정의하던 그간의 고용통계 수치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취업자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이 0.1~0.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과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1주간 구직경험’을 이용하는 과거 방식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2) 1/4분기 취업자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6%에 불과하여 14만2천개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4분기에는 3% 수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7%나 증가하여 무려 38만2천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경제의 취업계수가 31~32(명/1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거의 5% 가까운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증가가 2/4분기에 시험되었다.

〈표 1〉 2000~2005년 상반기 고용실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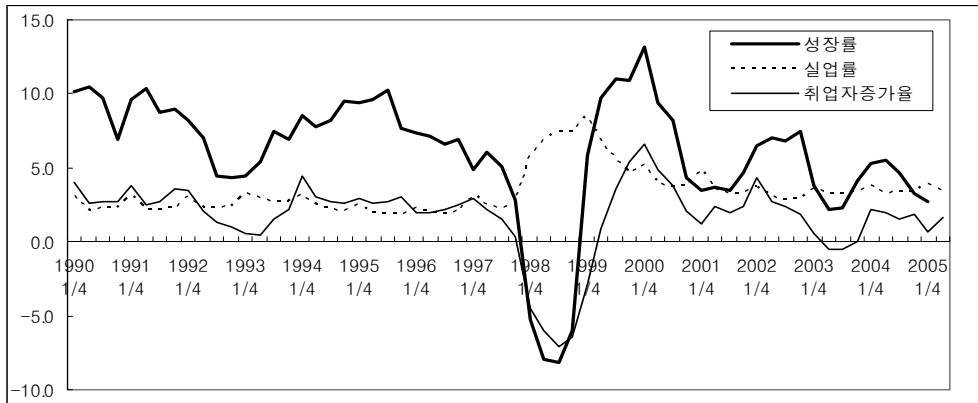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상반기	상반기	1/4	2/4
경제성장률	8.5	3.8	7.0	3.1	4.6	5.4	3.0 ^p	2.7	3.3 ^p
취업자증가율	4.3	2.0	2.8	-0.1	1.9	2.1	1.2	0.6	1.7
경제활동참가율	61.0	61.3	61.9	61.4	62.0	61.8	61.8	60.9	62.6
남 성	74.2	74.2	74.8	74.6	74.8	74.7	74.6	73.9	75.2
여 성	48.6	49.2	49.7	48.9	49.8	49.6	49.7	48.7	50.7
실업률	4.1	3.8	3.1	3.4	3.5	3.6	3.7	3.9	3.5
남 성	4.7	4.3	3.5	3.6	3.7	3.7	3.9	4.1	3.7
여 성	3.3	3.1	2.5	3.1	3.1	3.4	3.4	3.7	3.2
고용률	58.5	59.0	60.0	59.3	59.8	59.6	59.5	58.5	60.4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국은행,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2005.7..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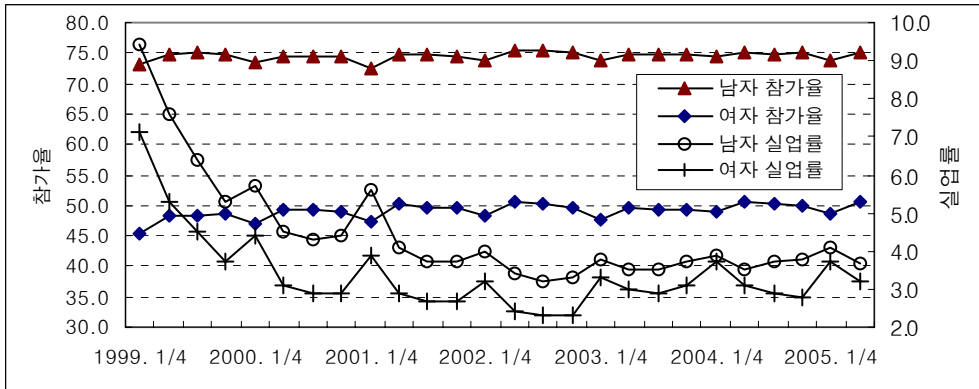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포인트 감소한 48.7%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0.7%를 기록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인구수가 5월 이후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1/4분기 73.9%로 전년동기대비 0.4%포인트 하락하였으나 2/4분기 75.2%를 기록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하였다.

금년 상반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에 고용사정이 더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여성 실업률은 3.4%, 남성 실업률은 3.9%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여성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남성은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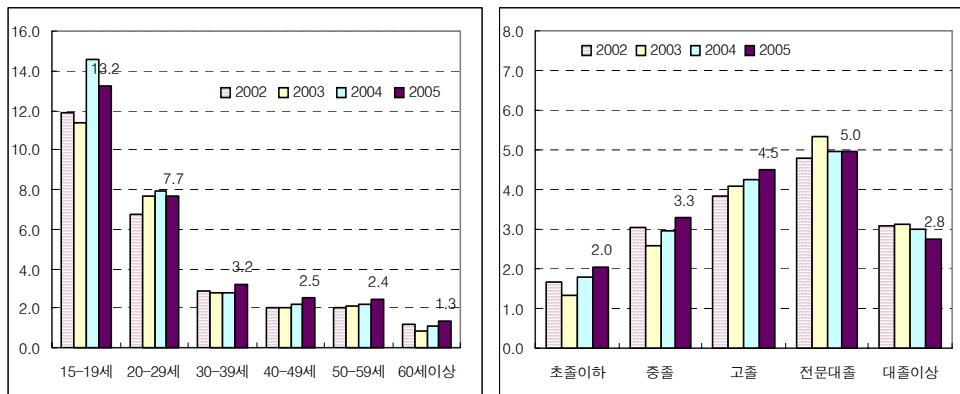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지난해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던 청년층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 중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5~19세 -1.4%포인트, 20~29세 -0.2%포인트). 그러나 3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여 가계를 책임져야 할 연령계층에서 고용위기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3 좌). 한편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감소한 반면,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자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저학력자의 고용기회가 점점 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 우).

[그림 3] 연령별 및 학력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주: 각년도 상반기(1~6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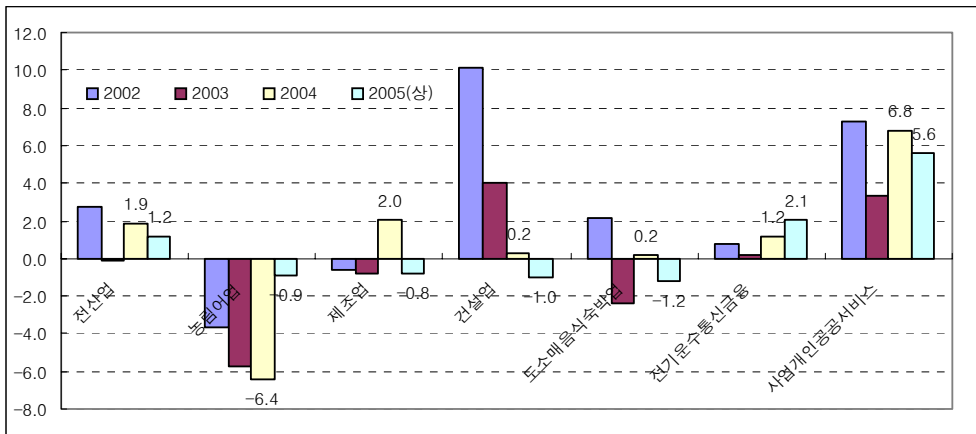
2. 산업별 생산과 고용창출 - 생산과 고용의 괴리

최근 성장과 고용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산업별 불균등 성장 및 이로 인한 고용창출능력의 변동일 것이다. 더욱이 고용창출이 어느 산업에 의해 주도되느냐에 따라 고용의 질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산업별 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면 일자리창출의 논점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2005년 상반기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과 전기·운수 및 통신·금융업을 제외하고 전산업에 걸쳐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에서의 고용감소로 서민층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그림 4). 세부 업종별로는 통신업(10.8%)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0.6%)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고,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8.7%)과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3%)이 그 뒤를 잇고 있다(부표 1). 반면에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2.6%)이며, 도소매업(-1.8%), 가사서비스업(-1.5%), 금융 및 보험업(-1.3%) 등에서도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그림 4] 산업별 취업자증감률

(단위 : %)



주 : 2005년 상반기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그림 5]는 지난 1/4분기까지의 업종별 GDP증가율과 업종별 취업자수 증가율을 통해 주요 업종에서의 생산과 고용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의 약 5분의 1을 고용하고 있고 생산비중이 34%에 달하는 거대

부문인데, 2004년을 제외하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용 없는 성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 경쟁,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으로 인해 노동절약적 프로세스가 요구되고 이것이 제조업 성장의 고용효과를 급격하게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고용규모(26.2%)로는 제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부문이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로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업종에 해당한다. 2003년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위축과정에서 가장 피해가 커 생산과 고용에서 급격한 감소를 겪었는데 최근 생산에서는 감소세가 멈췄으나 고용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대형화·전문화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도소매업은 영세자영자를 중심으로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림 하단부의 4개 업종은 2004년 이후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을 주도해온 대표적인 업종들에 해당한다. 우선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여행수요 및 이동통신 수요의 증가로 성장세가 꾸준하게 지속되고 2003년 경기침체기를 제외하면 고용에서도 4~5%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통신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운수창고업에서의 고용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고용증가가 생산증가를 웃돌게 되었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12.9%)이 제조업 다음으로 높아 고용규모(8.8%)에 비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업 및 정보처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업종과 부동산업, 인력공급사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업종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 고용이 경기와 순행하는 모습이 뚜렷하지만 업종의 생산은 고용증가 추이와는 반대 경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호경기에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부문에서 고용은 경기변동에 의해 기복이 크기는 하지만 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확대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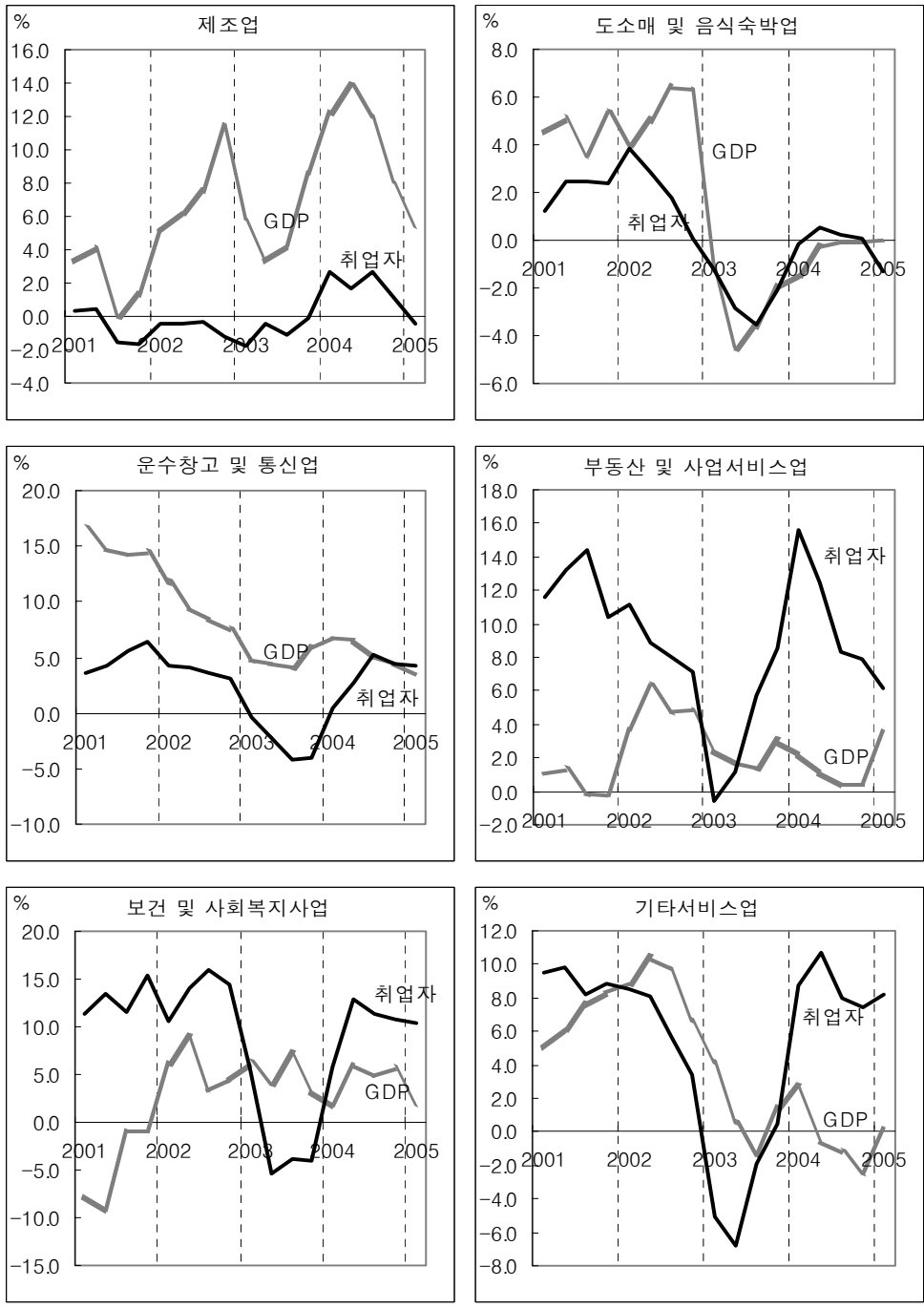
〈표 2〉 대분류 업종별 생산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2005. 1/4)

(단위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고용	6.9	0.1	19.1	0.3	7.6	26.2	6.3	3.3	8.8	3.4	6.7	2.8	8.4
생산	1.5	0.3	33.6	3.5	6.3	9.7	8.6	7.2	12.9	5.6	5.0	2.3	3.5

주 : 생산 구성비는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 고용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그림 5] 주요 6개 업종에서의 생산 및 고용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한국은행, 「200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2005. 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현재 생산에서 2.3%, 고용에서 2.8%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생산에서 꾸준하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고용에서는 2003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온 업종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에도 고용창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서비스업³⁾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주로 개인관련 서비스업을 망라하고 있으며 생산과 고용 모두 대체로 경기에 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이나 고용비중은 8.4%를 차지하여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2004년 중반 이후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 이 부문에서 취약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고용성장 업종에서 나타난 특징을 종합하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제외하면 생산에서의 증가가 고용증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도 최근 생산과 고용의 관계가 역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부문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장부문의 고용창출 위축, 저생산업종 위주의 고용창출 등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막고 고용증가가 경제성장 동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다.

3. 일용직, 단시간 취업자, 일시휴직자 등 취약고용 증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고용증가는 저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부가가치 부문이라 하더라도 취약고용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중 고용형태별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의 축소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근로자에 의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표 3). 여성 노동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중 자영자는 2003년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고용주는 지난해까지의 증가세를 뒤집고 2005년 들어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퇴출에 이어 영세기업의 퇴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3) 기타서비스업은 산업분류상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87-88),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S 가사서비스업(95) 등을 포괄한다.

〈표 3〉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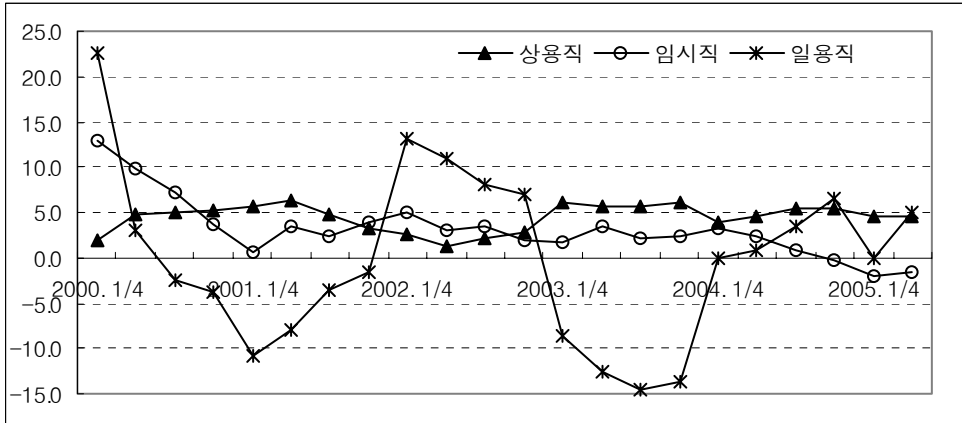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01	2002	2003	2004	2005(상)		
						1/4	2/4
비임금근로자	1.5	0.9	-3.1	-0.9	-0.6	-1.3	0.1
고용주	6.6	4.0	0.8	3.1	-2.0	-2.6	-1.4
자영자	2.0	1.7	-3.5	0.4	1.9	1.5	2.2
무급가족	-3.5	-3.5	-5.8	-8.3	-5.9	-8.1	-3.9
임금근로자	2.2	3.8	1.6	3.4	2.1	1.7	2.5
상용직	5.0	2.2	5.9	4.9	4.6	4.6	4.6
임시직	2.6	3.4	2.4	1.6	-1.8	-2.0	-1.7
일용직	-5.9	9.7	-12.5	2.7	2.5	-0.1	4.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그림 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증감률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임금근로자 가운데서는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상반기 들어 임시직 고용이 지난해까지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최근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시직 채용을 억제하고 상용직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시근로자를 많이 수요하는 영세 기업들이 퇴출하면서 임시직 고용도 함께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4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2005년 2/4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SOC 투자와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4.9%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그림 6). 일용직은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임시직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조건과 노동이동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취업자의 취업시간별로 고용증감률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2005년 상반기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6.4%, 18~26시간 취업자는 11.2%가 증가하여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순수 단시간 근로의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5일제가 확산됨에 따라 2004년에는 45~53시간 취업자가 감소하고 36~44시간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2005년 상반기 중에는 36~44시간 취업자도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올해 2/4분기에는 일용 근로자의 증가와 맞물려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시휴직자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12.7%나 증가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취업시간별 고용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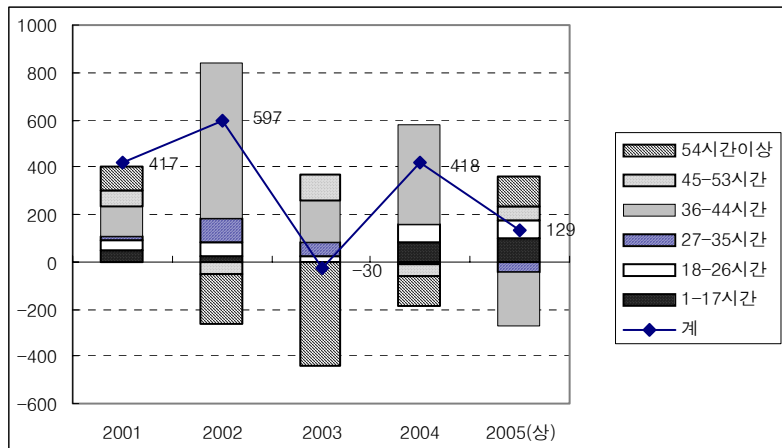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대비)

	2001	2002	2003	2004	2005(상)	2005(상)	
						1/4	2/4
전 체	2.0	2.8	-0.1	1.9	1.2	0.6	1.7
1~17시간	7.6	3.2	0.2	13.0	16.4	26.3	4.7
18~26시간	6.3	8.3	2.2	9.0	11.2	13.7	8.1
27~35시간	2.1	12.7	7.8	-0.7	-6.4	9.2	-18.4
36~44시간	3.3	16.2	3.7	8.4	-0.5	5.4	-5.4
45~53시간	1.1	-0.9	1.8	-0.9	0.0	-4.5	4.6
54시간 이상	1.1	-2.3	-5.0	-1.5	1.0	-3.9	5.9
일시 휴직자	8.8	6.8	17.6	9.9	12.7	17.5	4.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그림 7〉 취업시간별 취업자의 일자리 변동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Ⅲ. 2005년 하반기 고용전망

1. 경제전망

내수 침체와 수출 호조의 불균형 속에서 2005년 상반기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었지만 최근 2/4분기부터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2년간 침체되어있던 내수부문이 다소 회복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2005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유가를 비롯한 세계경제 불안요인과 위엔화 절상에 따른 원화절상 효과로 인해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늦춰지고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 예상된다. 연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반기(3.0%)보다는 높은 4% 중반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연간으로

〈표 5〉 주요 기관의 2005년 경제 전망

(단위: %)

		경제 성장률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 물가	실업률
한국은행 (2005. 7)	1/4	2.7	1.4	3.1	-2.9	12.7	14.4	3.2	3.9
	2/4	3.2	2.5	2.4	0.0	9.4	15.1	3.0	3.5
	3/4	4.0	3.2	5.6	1.9	11.0	17.9	2.6	3.5
	4/4	4.8	3.8	7.2	3.5	10.0	14.3	3.0	3.4
	상반기	3.0	1.9	2.8	-1.2	11.0	14.7	3.1	3.7
	하반기	4.5	3.5	6.4	2.8	10.4	16.0	2.8	3.4
	연간	3.8	2.7	4.6	1.0	10.7	15.4	3.0	3.6
KDI (2005. 7)	1/4	2.7	1.4	3.1	-2.9	12.9	13.8	3.2	3.9
	2/4	3.4	2.8	5.2	0.2	9.3	14.9	3.0	3.4
	3/4	4.3	3.6	8.1	1.5	12.2	19.8	2.5	3.5
	4/4	4.6	4.3	9.0	4.6	8.9	16.9	3.5	3.5
	연간	3.8	3.0	6.3	1.2	10.7	16.4	3.0	3.6
산업연구원 (2005. 6)	상반기	3.3	1.9	5.1	-0.2	11.2	15.3	-	-
	하반기	4.6	3.9	9.5	3.0	10.0	14.1	-	-
	연간	4.0	2.9	7.3	1.6	10.6	14.7	-	-
한국경제 연구원 (2005. 6)	상반기	3.2	2.3	3.4	-1.4	10.6	13.6	3.2	3.7
	하반기	5.0	4.7	6.7	3.2	5.8	11.1	3.2	3.5
	연간	4.1	3.5	5.0	1.1	8.1	12.3	3.2	3.6
삼성경제 연구소 (2005. 5)	상반기	3.2	1.3	5.8	-2.4	10.5	15.3	3.2	3.7
	하반기	4.2	4.0	8.0	3.6	8.2	14.7	3.1	3.5
	연간	3.7	2.6	6.9	0.5	9.3	15.0	3.2	3.6

주: 수출 및 수입은 통관 기준.

자료: 개별 기관.

는 3%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고용전망 및 과제

2005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용사정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참가율 증가에 힘입어 62.4%까지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1.6%, 369천명)는 지난해 수준에 다소 못미쳐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증가한 3.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은 0.2%포인트 상승한 60.2%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연간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 62.1%, 실업률 3.7%, 고용률 59.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연초 전망치(경제활동참가율 62.2%, 실업률 3.6%, 고용률 60.0%)보다는 참가율과 고용률은 하향조정, 실업률은 근소하게 상향조정된 수치이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우며 약 31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여성고용 확대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부표 2).

참고로 본원의 고용전망은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전망을 기초로 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수요(취업자수)를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률을 비롯한 노동시장 주요 지표들을 도출하고 있다. 성별로 분리하여 공급과 수요를 전망하였다는 것이 예년과 다른 점이다. 모형추정에 사용된 실적치 자료는 1988년 1/4분기부터 2005년 1/4분기까지의 분기자료이고 전망에는 노동의 공급 및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건설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전망치가 고려되었다(부표 3).

〈표 6〉 2005년 주요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명, %)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	2/4	3/4p	4/4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	5.4	3.9	4.6	2.7	3.2	4.0	5.0	3.0	4.5	3.8
경제활동인구	23,256	23,484	23,370	23,159	23,957	23,855	23,992	23,558	23,923	23,741
참가율	61.8	62.1	62.0	60.9	62.6	62.3	62.6	61.8	62.4	62.1
취업자	22,424	22,690	22,557	22,247	23,126	23,014	23,103	22,686	23,058	22,872
(증가율)	(2.1)	(1.7)	(1.9)	(0.6)	(1.7)	(1.6)	(1.6)	(1.2)	(1.6)	(1.4)
(증감수)	(456)	(380)	(418)	(142)	(382)	(367)	(370)	(262)	(369)	(315)
실업률	3.6	3.4	3.5	3.9	3.5	3.5	3.7	3.7	3.6	3.7
고용률	59.6	60.0	59.8	58.5	60.4	60.1	60.2	59.5	60.2	59.8

주 : p는 전망치임.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잠재력이 급속히 소진되면서 정부의 고용창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성장잠재력의 축소,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지원정책이 일정 정도 양적인 의미에서의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의 질 및 고용안정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의 고용드라이브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수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 외에도 성장동력이 소진되지 않은 제조업과 잠재적 수요가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생산업종 위주의 고용창출, 취약고용의 증가 등 고용상황을 위협하는 징후들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정책에서도 성장동력의 복원이나 고용창출구조의 재편과 같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HLI**

〈부표 1〉 산업별 취업동향

(단위 : %, 천명)

	2001	2002	2003	2004	2005(상)		
						1/4	2/4
전 산업	2.0 (417)	2.8 (597)	-0.1 (-30)	1.9 (418)	1.2 (262)	0.6 (142)	1.7 (382)
농림어업	-4.2 (-95)	-3.7 (-79)	-5.8 (-119)	-6.4 (-125)	-0.9 (-17)	-5.2 (-84)	2.6 (50)
광업	7.0 (1)	-0.9 (0)	-4.2 (-1)	-6.5 (-1)	8.2 (1)	-5.3 (-1)	24.8 (4)
제조업	-0.6 (-27)	-0.6 (-26)	-0.9 (-36)	2.0 (85)	-0.8 (-35)	-0.4 (-18)	-1.2 (-5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9.1 (-6)	-10.1 (-6)	44.9 (24)	-4.8 (-4)	-2.6 (-2)	-4.6 (-3)	-0.6 (0)
건설업	0.3 (5)	10.2 (161)	4.0 (69)	0.2 (4)	-1.0 (-18)	-3.9 (-70)	1.8 (33)
도매 및 소매업	2.6 (98)	1.5 (60)	-3.0 (-120)	-1.7 (-66)	-1.8 (-69)	-1.9 (-74)	-1.7 (-63)
숙박 및 음식점업	1.2 (24)	3.3 (64)	-1.3 (-25)	3.8 (76)	-0.2 (-5)	-0.2 (-3)	-0.3 (-6)
운수업	4.3 (46)	2.3 (26)	-4.9 (-55)	4.0 (43)	2.7 (31)	3.4 (37)	2.2 (24)
통신업	8.5 (16)	11.1 (23)	7.6 (18)	-0.2 (-1)	10.8 (26)	8.1 (20)	13.4 (32)
금융 및 보험업	1.1 (8)	-3.4 (-26)	2.3 (17)	-1.7 (-13)	-1.3 (-9)	-1.8 (-14)	-0.7 (-5)
부동산 및 임대업	8.3 (29)	8.5 (32)	2.6 (11)	7.0 (30)	6.0 (27)	4.3 (19)	7.7 (35)
사업서비스업	13.7 (139)	8.9 (102)	4.2 (53)	12.1 (158)	5.7 (81)	6.7 (94)	4.7 (6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57)	0.1 (1)	7.8 (55)	1.5 (11)	2.7 (21)	0.6 (5)	4.8 (37)
교육서비스업	3.8 (45)	8.0 (99)	11.2 (149)	1.5 (23)	2.3 (35)	2.4 (35)	2.2 (3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0 (56)	13.8 (67)	-2.1 (-12)	10.2 (55)	10.6 (62)	10.4 (59)	10.9 (6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7.7 (28)	6.4 (25)	1.6 (7)	7.8 (33)	8.3 (38)	7.0 (32)	9.5 (4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0.0 (89)	6.5 (64)	-4.2 (-44)	17.5 (174)	8.7 (99)	11.6 (127)	6.0 (70)
가사서비스업	10.5 (20)	4.5 (9)	-10.7 (-23)	-35.1 (-67)	-1.5 (-2)	-12.4 (-18)	11.8 (14)
국제 및 외국기관	-16.4 (-3)	17.0 (3)	22.4 (4)	8.6 (2)	-1.3 (0)	-4.3 (-1)	1.6 (0)

주: ()안은 취업자 증감인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부표 2〉 2005년 성별 고용전망

(단위 : 천명, %)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	2/4	3/4p	4/4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남 자]										
경제활동인구	13,651	13,754	13,702	13,646	13,986	13,880	13,979	13,816	13,929	13,873
참가율	74.7	74.9	74.8	73.9	75.2	74.6	75.0	74.6	74.8	74.7
취업자	13,147	13,240	13,193	13,081	13,475	13,395	13,473	13,278	13,434	13,356
(증가율)	(1.5)	(1.0)	(1.2)	(0.4)	(1.6)	(1.4)	(1.5)	(1.0)	(1.5)	(1.2)
(증감수)	(190)	(136)	(163)	(51)	(211)	(191)	(196)	(131)	(194)	(163)
실업률	3.7	3.7	3.7	4.1	3.7	3.5	3.6	3.9	3.6	3.7
고용률	72.0	72.1	72.0	70.9	72.4	72.0	72.3	71.6	72.1	71.9
[여 자]										
경제활동인구	9,605	9,731	9,668	9,513	9,971	9,975	10,013	9,742	9,994	9,868
참가율	49.6	50.0	49.8	48.7	50.7	50.7	50.8	49.7	50.7	50.2
취업자	9,278	9,450	9,364	9,165	9,651	9,619	9,630	9,408	9,625	9,517
(증가율)	(3.0)	(2.7)	(2.8)	(1.0)	(1.8)	(1.9)	(1.8)	(1.4)	(1.9)	(1.6)
(증감수)	(267)	(245)	(256)	(91)	(170)	(176)	(174)	(131)	(175)	(153)
실업률	3.4	2.9	3.1	3.7	3.2	3.6	3.8	3.4	3.7	3.6
고용률	47.9	48.6	48.3	46.9	49.1	48.9	48.8	48.0	48.9	48.4

주 : p는 전망치임.

〈부표 3〉 고용전망 모형 추정결과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취업자수 (로그값)	여성 취업자수 (로그값)
상수항	24.578(5.440)***	18.487(4.760)***	상수항	2.706(4.850)***	2.484(5.290)***
전년 동분기값	0.674(11.340)***	0.587(7.180)***	전년 동분기값	0.550(5.500)***	0.521(6.050)***
경제성장률	0.083(3.320)***	0.137(5.550)***	로그 실질GDP	0.331(10.070)***	0.491(8.830)***
건설투자증가율	-0.013(-1.670)	-	로그 실질GDP의 전년 동분기값	-0.200(-3.550)***	-0.334(-4.760)***
수출증가율	0.014(2.220)**	-0.014(-2.240)**	IMF 가변수	-0.030(-5.830)***	-0.024(-4.130)***
수입증가율	-0.017(-2.610)**	-	IMF 이후 가변수	-0.011(-1.710)*	-
시간항	-	0.187(4.100)***	1/4분기 가변수	-0.004(-1.430)	-0.022(-3.370)***
IMF 가변수	-0.903(-4.440)***	-1.383(-4.100)***	4/4분기 가변수	-0.014(-2.840)***	-0.021(-3.410)***
IMF 이후 가변수	-0.422(-3.090)***	-0.784(-2.060)**			
1/4분기 가변수	-0.479(-3.130)***	-1.128(-3.680)***			
adj. R ²	0.908	0.902	adj. R ²	0.988	0.978

주 : 1) ()안의 수치는 t값.

2) ***,**,*는 각각 유의수준 1%, 5%,10%.

3) 분석자료는 1980년 1/4분기부터 2005년 1/4분기 실적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